

시설물 하자 마감공사 불량 이 가장 많아

조달청, 타일·도장 등 마감불량 26.5%... 책자배포·홈페이지 공개, 빈도 높은 하자 중점관리

공공시설물의 하자발생 유형 중 마감공사 불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공사 관리·준공한 100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타일, 도장, 수장 등 마감공사불량이 26.5%로 으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방수불량(누수) 13.1% ▲설비 시공불량(배관) 10% ▲조경 수목 고사 7.1% ▲미장균열 6.7% ▲전기(누전)·통신(수신불량) 6% ▲토목 침하(다짐불량) 4% 순이다.

이들 마감공사불량 등 7개 유형이 전체 하자의 73.4%로 집중관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점검대상 100개 시설물에서 449건의 하자가 조사돼 시설물 한 곳당 평균 4.5건이 생긴 셈이다.

공종별로는 건축이 55.2%로 가장 높고 기계(17.4%), 토목(8.6%), 조경(8.2%), 전기(6.2%), 통신(3.1%), 소방(1.3%)이 뒤를 이었다.

조달청은 이를 바탕으로 '하자발생사례 분석' 책자를 만들어 공사현

장에 배포하고 자료를 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와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에도 올릴 계획이다.

'하자발생사례 분석' 자료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 7개 공종에 대한 공종별·유형별 하자발생률, 분야별 하자발생 사례, 시공관리 때 유의사항이 담겨 있다.

강정세 조달청 공사관리팀장은 "분석 자료에 따라 하자를 중점 관리하면 결함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공공시설물의 내구성, 활용성을 높여 유지보수 예산절감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보험 민원서류 모든 기관서 받는다

사업장 변경 신고 등...건설 관련 고용보험·산재보상보험 서류는 제외

14대 사회보험 관련 민원서류 신청이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기관 및 직업안정기관에서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는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지난 8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고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해

건설소식

CONSTRUCTIONNEWS

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처리해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서류 접수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물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건설공사와 관련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민원서류(사업개시신고 관련 서류 포함)는 제외됐다.

신고가 가능한 공통서식은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서식 5종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서식 5종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서식 5종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식 5종 △사업장가입자 내역변경 신고서식 5종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식 5종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식 3종 △지역가입자 자격상실(내역변경) 신고서식 3종 등이다.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는 2011년 8월부터 적용된다.

고유서식은 △국민연금 보험료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 △고용보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등이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만 접수한다.

조달청 '나라장터', 불법전자입찰 없는 청정지대 만든다

PC원격접속 입찰까지 차단, 시스템을 악용한 대리입찰 완전 치유

조달청 '나라장터'가 입찰비용 없는 청정지역으로 거듭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나라장터'의 불법전자입찰 척결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지문인식 전자입찰'과 병행해 다른 업체의 입찰자 PC를 원격 접속, 불법으로 입찰서를 작성하는 대리입찰 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자격 없는 자가 '비대면 전자입찰의 특성'을 악용해 불법 대리입찰하는 행위가 완전 봉쇄된다.

조달청은 지난 5월부터 '나라장터' 부정활용 방지와 품질·기술개발을 견인하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2의 '나라장터' 시스템 혁신인 '나라장터 Reno-project'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격 PC공유 접속 차단'도 이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그동안 지적된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 대리입찰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 도입으로 해소됐다. 그러나 원격 PC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지문인증은 입찰자가 수행하

고, 실제 입찰서 제출은 타인이 대행할 수 있다는 시스템적인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2개월 동안 '원격 PC공유 접속 차단 시스템'의 '나라장터' 적용 안정성을 사전 검증해 본격 적용하게 됐다.

이번에 도입한 '원격 PC공유 접속 차단 시스템'은 입찰브로커 등이 원격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타인의 입찰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시스템이 자동 감지해 '모든 입찰서는 원격공유를 통해 제출할 수 없다'는 팝업 안내문과 함께 입찰금액을 입력할 수 없도록 구축됐다.

따라서 입찰자는 반드시 PC원격공유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가동되지 않도록 해야만 입찰서 작성·제출이 가능해 철저한 사전 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 도입과 '원격 PC공유 접속 차단'으로 권한 없는 자의 불법대리 입찰행위는 완전 차단했으나 입찰 담합 등 '나라장터'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까지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불법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계약종류 및 업무 특성에 따라 심층 분석이 가능토록 입찰담합 또는 불법행위 전문 조사기관에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등 추가 보완조치도 곧 마련할 계획이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원격 PC공유 접속차단 조치 외에도 부정당업자, 영업정지, 등록취소, 휴·폐업

자를 비롯 부적격자 입찰차단시스템 도입 등 ‘나라장터’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다”며 “‘나라장터’ 부정활용의 완전 해소와 함께 조달품질과 기술개발을 견인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산재보험엔 기왕증 적용 안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기왕증(기존 질병)은 고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산소축매제품 제조업체 A사 직원 위모(43)씨가 "추가 요양 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좌측 6번 뇌신경 마비, 복시(사물이 겹쳐 보이는 현상), 비출혈(코피) 등의 진단을 받아 요양 중이던 위씨는 이듬해 중증의 우울증을 이유로 추가 요양 급여 지급 신청을 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질병과 우울증의 연관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위씨는 "최초 발병에 따른 심리적 절망감과 통증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초 질병이 우울증

의 원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우울증의 상당 부분은 위씨의 개인적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상 질병의 치료 과정이 우울증 악화에 1/4 정도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입법 취지와 이념, 급여의 성격에 비춰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기왕증을 참작하는 민사 손해배상 사건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는 기존 질병의 개념을 산재보험법 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내린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



놀라운 발견과 위대한 발명

거울

고대의 거울은 구리나 청동 등을 매끈하게 갈아서 만든 금속거울이었다. 매우 무거웠기 때문에 휴대는 어려웠다. 미케네 시대 그리스에서는 정교한 선각으로 장식되고 상아로 만든 자루가 달린 둥근 거울이 만들어졌다. 이때의 거울은 화장도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섬세한 모양으로 여성스럽게 만들었다.

12~13세기부터 유리거울이 널리 보급되었는데 1373년에 뉘른베르크에서는 유리거울직공조합이 결성되기도 했다. 르네상스 시대에 베네치아는 유리제작의 중심지였다. 16~17세기를 통하여 금속거울 대신 유리거울이 유럽에 보급되었다.

루이 14세는 이탈리아에서 많은 기술자를 초청했는데, 베네치아에서 프랑스로 옮겨 간 유리 제조자들에 의하여 거울

의 제법도 전해졌다. 바로크 시대와 로코코 시대를 통하여 궁전이나 성의 벽에 거울을 붙이는 것이 유행하면서, 프랑스의 거울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이탈리아 제품을 압도하게 되었다. 베르사유 궁전의 유명한 ‘거울의 방’의 유리거울은 모두 프랑스에서 만든 것이었다.

로코코 시대에 장식미술이 발달하면서 거울을 가구로서 재인식하게 되었고 뛰어난 금·은 기술자나 가구기술자가 거울의 테두리 장식 디자인에 관여했다.

19세기에 이르자 평평하고 투명한 유리판이 만들어졌으며 은을 도금하는 새로운 기법이 발명되어, 거울은 일반인에게도 널리 보급되었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